

TEXTILE FASHION TREND ISSUE

DYETECREVIEW 다이텍 섬유 리뷰



FASHION

2025년 섬유 패션업계 키워드 '버락 끝 변화 도모'

‘글로벌로 도약하는 K-패션·SNS팬덤문화-ESG 딜레마’로 압축

2025년 국내 패션산업은 정치적 불안과 경제 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내 소비환경의 성장 한계로 인해 해외 시장 진출이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MZ세대와 K-컬처가 글로벌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면서 SNS 기반의 소비 경험 공유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패션업계는 ‘버락 끝 변화’를 키워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무대를 겨냥한 브랜드들이 등장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가 커지면서 패션업계는 ESG 경영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친환경 공약 실천이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SNS의 영향력 확대와 개인 취향을 반영한 스몰 브랜드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신예 브랜드들이 불황 속에서도 성공을 거두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25년에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소재 혁신과 지속가능 패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FASH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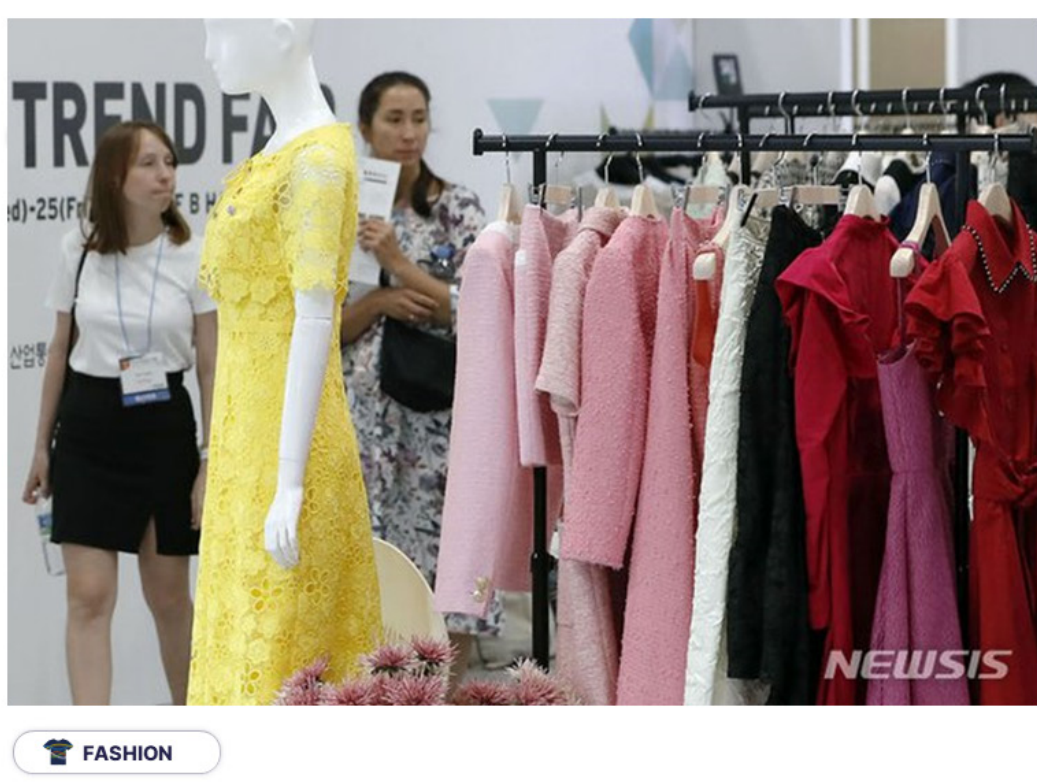
2025년 데이터와 AI로 그리는 섬유패션 미래

섬산련, “데이터 기반 트렌드&활용전략 세미나”로 업계 관심 집중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지난 12월 17일(화) 섬유센터 3층에서 “2025 데이터기반 트렌드&섬유패션 DATA·AI 활용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섬유패션 업계에 발맞춘 전략과 트렌드를 공유하여 업계 종사자들의 선제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은 ‘데이터·AI 활용 전략’을 주제로 데이터와 생성형 AI 분야 국내 대표기업인 (주)솔트룩스 이경일 대표의 기조강연과 삼성 KPMG AI센터 이동근 전무의 기업 혁신 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들은 AI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변곡점에 있는 산업 전반이 변화를 언급하며, 2025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 AI의 활용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AI 에이전트 시대’임을 강조했다. 이후, AI 기술 도입 사례를 소개하며 AI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 비즈니스, 데이터, 기술, 거버넌스 측면의 종합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섬산련이 [섬유 패션 빅데이터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패션넷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기반 트렌드 정보를 사례와 소개하며, “디지털 전환과 함께 데이터와 시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섬유패션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섬산련은 기업들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계의 디지털 기술 문턱을 낮추고, 수요 예측과 반응생산 등 풀어나야 할 과제에 해답을 찾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FASHION

산업부, 2025년 섬유패션인 신년인사회... 재도약 다짐

산업용 섬유 육성, 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1월 7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2025년 섬유패션산업의 도약을 다짐했다. 행사에는 섬유패션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국제경제 변화와 경제환경이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강연도 진행됐다. 김지훈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섬유패션업계가 나아가야 할 전략을 발표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 둔화, 수요 감소,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으로 인해 섬유패션업계가 내수와 수출 모두 어려움을 겪었지만, 첨단 산업용 섬유 투자 확대와 K-패션의 해외 진출 가속화 등 긍정적인 요소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25년 경제 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수출 동력 유지를 위해 업계를 지원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과 첨단 산업용 섬유 육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은 2025년이 섬유패션업계가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친환경·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시장 다각화를 추진함으로써 섬유패션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섬유패션업계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의미를 가졌다.



FASHION

2025 섬유산업 대예측 “지속가능·공급망·순환 패션·첨단기술”

AI, 자동화, 웰니스 패브릭이 혁신을 주도

2025년 섬유 산업은 지속 가능성, 추적 가능한 공급망, 순환 패션,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글로벌 소비자, 특히 Z세대는 윤리적 소비와 친환경 제품을 중시하며, 패스트 패션보다 슬로우 패션과 프리미엄 품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친환경 소재 개발과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AI 및 자동화 기술이 섬유 산업을 혁신하면서, 웰니스 패브릭과 기능성 섬유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들은 공급망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무수(無水) 염색 기술과 재생 섬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친환경적 접근이 점점 중요해지는 가운데,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은 지속 가능한 소재를 활용한 제품 라인을 확대하는 추세다.

무역 정책 변화와 마이크로파인스 등의 금융 개혁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며, 섬유업계의 생산과 유통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ESG 경영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들은 환경 보호와 노동권 강화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경영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친환경·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FASHION

지속가능패션이니셔티브 '24 섬유·패션 ESG' 10대 뉴스 선정

2025년 섬유·패션 업계가 가장 주목해야 할 10개의 ESG 이슈

리워크, 중고거래 등의 순환경제 모델 확산이 2024년 섬유·패션 ESG 첫 번째 뉴스로 이름을 올렸다. 또 에코 디자인 규정(EU ESPR)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2025년 섬유·패션 업계가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로 선정됐다.

지속가능패션이니셔티브(의장 주상호)는 올 한 해 전문지와 경제지 상에 나타난 섬유·패션 산업 ESG 관련 기사의 빈도와 중요도를 분석해 '24 섬유·패션 ESG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동시에 지속가능패션이니셔티브(Sustainable Fashion Initiative; SFI) 워킹그룹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2025년 섬유·패션 업계가 가장 주목해야 할 10개의 ESG 이슈를 발표했다.

SFI가 선정할 2024년 섬유·패션 ESG 10대 뉴스는 ▶리워크 패션, 자사물 중고거래 등 순환경제 모델 확산 ▶서울컬렉션에서 찾은 지속가능 패션과 환경의 공존 ▶현재, 탄소중립기본법 '미완성 감축 목표'에 철회 ▶경기 침체로 인한 섬유·패션 ESG 정책 위축 ▶이상 기후와 소비 침체, 패션 업계의 복합 위기 ▶K패션, 'All in Korea' 인증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SFI, 국내 최초 섬유·패션 전용 DPP 프로토타입 출시 ▶ESG 성과 담은 경영보고서로 지속가능성 강조 ▶12개 ESG 우수 패션 기업 'Who's Sustainable' 선정 ▶패션 업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온정 나눔 실천 등이다.



FASHION

무신사와 일본 진출한 마뎡킴 오사카서 올해 첫 팝업

첫 팝업 스토어 행사, 성황리에 진행

무신사는 일본에서 공식 유통하는 패션 브랜드 마뎡킴의 올해 첫 팝업 스토어(임시매장)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무신사에 따르면 지난 22~28일 오사카의 한류 우메다백화점 본점에서 진행된 팝업에서 마뎡킴의 가을·겨울(FW) 인기 상품 등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행사 기간 20~30세대 여성 중심으로 약 9000명이 매장을 찾았고 온오프라인 합산 약 6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무신사는 올해 상반기 중 도쿄 시부야에 마뎡킴의 첫 브랜드 매장을 열 계획을 갖고 있다.

무신사 관계자는 “일본 현지에서 마뎡킴의 성장 잠재력과 화제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마뎡킴을 일본 시장에 안착시키고 나아가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 및 사진 출처

1. 한국섬유신문, 2025년 섬유 패션업계 키워드 '버락 끝 변화 도모', 25년 01월 01일
2. 국제섬유신문뉴스, 2025년 데이터와 AI로 그리는 섬유패션 미래, 24년 12월 19일
3. 뉴시스, 산업부, 2025년 섬유패션인 신년인사회-재도약 다짐, 25년 01월 07일
4. 국제섬유신문뉴스, “지속가능, 공급망, 순환 패션, 첨단기술”, 25년 01월 08일
5. 파이낸셜뉴스, 무신사와 일본 진출한 마뎡킴, 오사카서 올해 첫 팝업, 25년 01월 31일
6. FASHIONBIZ, 지속가능패션이니셔티브, '24 섬유·패션 ESG' 10대 뉴스 선정, 24년 12월 18일

FABRIC DIVE CONTACT

문의 : 다이텍연구원 데이터융합연구센터

TEL : 053-350-3744, 3908 EMAIL : fabricdive@dyetec.or.kr



JOIN US